

7.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 만화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 ②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의 행동 자체를 언급한다.
- ③ 자녀의 상황과 의중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자녀의 행동을 평가한다.
- ④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 ⑤ 자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8.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1점]

- ① 인성이나 능력 등 내면적 가치를 빼놓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겠지? 사람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의식을 대안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지나치게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거식증이나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해. 외모 지상주의가 낳는 폐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아야겠어.
- ③ 외모가 내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가 성형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찾은 사례를 찾아보아야겠어.
- ④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외모를 따지는 회사가 많다고 해. 우리 사회에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⑤ 외양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모 지상주의에는 문제가 있어. 왜 그런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외모 지상주의'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9 - 10]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보기 1>의 개요를 쓴 다음 이를 <보기 2>의 개요로 고쳐 썼다. 잘 읽고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집중 호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 I. 집중 호우 피해의 주요 원인
 - 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의 훼손
 - 2. 하천 바닥과 주변 및 교량 관리 허술
 - 3. 일시적 피해 복구에 급급한 재해 관련 행정
- II.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양상
 - 1. 산사태와 그로 인한 토사의 유입
 - 2.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 III. 집중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 1. 숲의 보전을 통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
 - 2. 하천 및 교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범람 방지
- IV.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촉구



주제문: 집중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재 관리가 필요하다.

- I. 서론: 집중 호우 피해의 실태
- II. 본론
 - 1.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양상
 - 산사태와 그로 인한 토사의 유입
 -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 특정 지역에서의 상습적인 피해
 - 2. 집중 호우 피해의 주요 원인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의 훼손
 - 하천 바닥과 주변 및 교량에 대한 허술한 관리
 - 일시적 피해 복구에 급급한 재해 관련 행정
 - 3. 집중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 숲의 보전을 통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
 - 하천 및 교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범람 방지
 - 예방에 초점을 둔 재해 관련 행정 체계 수립
- III. 결론: 집중 호우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 관리 촉구

9. 개요를 고치는 과정에서 반영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제문을 좀더 구체화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논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글의 구조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어.
- ③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범위를 글의 주제에 맞게 한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양상' 부분에서는 상위 항목과 무관한 하위 항목이 있는데 이를 적절한 것으로 수정해야 해.
- ⑤ '집중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부분은 '집중 호우 피해의 주요 원인'과 대응되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10 <보기 2>의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작년에 물에 잠겼던 마을의 주민이 올해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
- ②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외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 ③ 대규모의 개발로 인해 피해 지역 주변의 산림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
- ④ 집중 호우 때 범람한 하천 바닥의 준설 작업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⑤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횟수는 많으나 재해 예방을 위한 심층 보도의 횟수가 적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

11 다음 그림과 관련하여 교훈적 문구를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 조건
- 1. 그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
- 2.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3. 역설적 깨달음을 표현한다.

- ① 나를 낮출수록 자신은 높아지고 남을 낮출수록 자신도 낮아진다.
- ② 한계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 ③ 도전하지 않는 성공은 가장 큰 실패이며 포기하지 않는 실패는 가장 큰 성공이다.
- ④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생각하며,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한다.
- ⑤ 자신에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비하이며, 더 나아지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방치이다.

12 <보기>의 글을 퇴고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종이 한 장으로 곤충, 물고기, 공룡 등을 고생 끝에 만들어 내고 나면 그 뿌듯한 성취감은 ㉠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요즘 내가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종이접기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나만의 종이접기 전시회도 ㉡ 급방 열어 보고 싶다. 훌륭한 종이접기 작가들은 어떤 대상을 관찰한 후 그 특징을 종이로 단번에 ㉢ 표현해 낸다는 점이다. ㉣ 이것은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날카로운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종이접기는 다른 취미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선배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종이접기 대가가 될 것이다.

- ① ㉠ : '이루'와 '다'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이루 다'로 띄어 쓴다.
- ② ㉡ : 문맥상 어색하므로 '조만간'으로 교체한다.
- ③ ㉢ :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표현해 낸다.'로 고쳐 쓴다.
- ④ ㉣ : 새로운 내용이므로 문단을 나누어 서술한다.
- ⑤ ㉤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ㄴ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중의성(重義性)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구성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의 직접구성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이다.

- ㄱ.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 ㄷ.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 ①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다.
- ② ㄴ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에는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ㄷ의 경우 '부지런한'을 고려하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구성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이다.
- ⑤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보기>의 밑줄 친 어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 장터 주막 언저리는 제법 붐비고 있었다.
- 우리는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졌다.

- ① 주변(周邊) ② 도달(到達) ③ 간격(間隔)
- ④ 입구(入口) ⑤ 순환(循環)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예술가들은 재료의 가치와 중요요움을 발견했다. 물론 ㉠이전의 예술가들이 재료로부터 창조적 구성이 나오고, 재료가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재료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재료 그 자체는 아직 미적 질서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美)란 재료 위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예술가들은 이런 확신에 반발하면서 재료를 재평가했다. 그들은 기존의 조형 예술의 틀을 포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신선함을 지닌 재료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의 밑바탕으로만 여겨졌던 재료는 그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자 예술적 창조의 대상이 되었다.

‘앵포르멜(informel)’이라고 불리는 회화에서 우리는 얼룩, 균열, 덩어리, 박편, 물방울 같은 재료들의 승리를 볼 수 있다. 앵포르멜 화가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재료 그 자체, 즉 캔버스 위에 흠뿌린 물감이나 찢어진 자루, 균열이 생긴 금속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들은 그림이나 조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는 우연의 산물로 만들기 위해 일체의 형식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가는 그저 원재료를 상기시키는 제목을 자신의 작품에 붙일 따름이다. 몇몇 앵포르멜 화가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갈, 얼룩, 곰팡이, 녹 등의 재료를 선택하고 강조했으며,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표현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재료의 비정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각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미 20세기 초에 뒤상 같은 예술가들이 제안했던 레디메이드 미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술가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이,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자전거 바퀴, 열에 의해 변형된 칩, 마네킹, 그리고 심지어 번기까지 조각 작품으로 선택했다. 일상의 사물들이 별다른 변형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예술가에 의해 선택되고 제목이 붙여져서 작품이 되는 순간, 이 사물들은 마치 작가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미 소비 주기가 끝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상품이나 산업 폐기물이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재료들을 통해 예술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화된 세계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 산업화된 세계의 사물들 역시 미적 감동을 전해 줄 수 있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소비 주기가 끝나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버려진 이 재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쓸모없음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낡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를 압착하고 변형시켜 일그러진 금속의 형태를 제시한 세자르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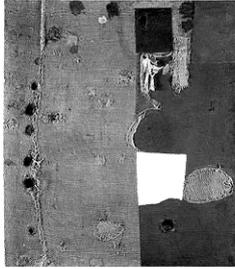
15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재료의 가치를 재평가한 20세기 예술
 - 재료 그 자체를 통해 미를 표현하고자 한 시도들

- ② 재료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
 - 창조적 정신의 표현에 의해 성취되는 작품의 미
- ③ 예술가들이 재료를 다루는 방식
 - 앵포르멜 화가들이 사용한 재료와 기법을 중심으로
- ④ 현대 예술의 다양한 재료들
 -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재료에서부터 재생산된 재료까지
- ⑤ 쓸모없는 물건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들
 -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16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낡고 거친 삼베 조각, 종이 슬었거나 찢어진 천, 다락방에 버려진 자루 조각 등의 재료를 되대로 오려 붙이고는 그것에 ‘자루’라는 제목을 붙였다.

알베르토 부리, <자루>

- ① 작가는 재료를 통해 자신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한 것은 아닐까?
- ② 작가가 ‘자루’라고 제목을 붙인 데에는 원재료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 ③ 이 작품은 구멍이 뚫려 있고 낡아서 해어진 부분이 있는 천들의 우연한 결합을 그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 ④ 찢어진 천, 버려진 자루 조각 등을 선택하여 재료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앵포르멜’로 평가하는 것 같다.
- ⑤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자루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 같다.

17 ㉠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예술가가 할 일은 여분의 것을 깎아내, 그 대리석이 함유하고 있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 놓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 ② 조지프 애디슨은, 미는 선명하거나 다양한 색상, 각 부분의 조화와 비례, 사물들의 질서와 배치, 혹은 이 모든 요소들이 적절히 혼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 ③ 루소는, 탁월한 시각은 섬세하고 세련된 감정과 같은 것이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화가는 일반 관람객들이 주목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 ④ 호손은, 젊은 조각가들이 천박한 여성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든 후, '이브'나 '비너스'와 같이, 몸에 제대로 걸친 것이 없어도 평계가 될 만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비평했다.
- 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는 인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물들의 주인으로, 단 한 번의 눈길로 사물들이 만들어 내는 균형 잡힌 조화를 포착해 되살려 낸다고 말했다.

18 문맥을 고려하여 ㉠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개가 제 살을 갈라 품은 진주처럼
- ② 파도가 모래 위에 그려 놓은 흔적처럼
- ③ 바람벽에 남겨 놓은 여행자의 자취처럼
- ④ 산새마저 날아간 저녁 무렵의 끝짜기처럼
- ⑤ 낡은 일기장에서 찾아낸 어릴 적 사진처럼

19 ㉠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곳에 있는 바퀴들은 이미 속도를 잃었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유롭다.
 나를 속박하던 이름도 광택도
 이곳에는 없다.
 줄리워도 눈 감을 수 없었던 내 눈꺼풀
 지금 내 눈꺼풀은
 꿈꾸기 위해 있다.
 나는 비로소 지상의 화려한 불을 끄고
 내 옆의 해바라기는
 꿈 같은 지하의 불을 길어 올린다.
 비로소 자유로운 내 오장육부
 내 육체 위에 풀들이 자란다.
 내 육체가 키우는 풀들은
 내가 꿈꾸는 공기의 질량만큼 무성하다.

- 박남희, '폐차장 근처' 중에서

- ① 이미 소비 주기가 끝나 버려진 폐기물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 ②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 ③ 작가는 소재 그 자체의 속성과 의미에 주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 ④ 쓸모없는 것들에서 미적 감동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 ⑤ 작가는 자신과 대비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0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뭇잎 사이로
 살쥔이 한 마리 지나가고
 색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 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술한 나무와 짐승들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약호 외쳐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 짙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색어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 둔 채 떠난다 그리고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

(나)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더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어짐즉
 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즉도 하이 다
 람취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끝을 걸음이란다? 웃걸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 조찰히* 늙은 사나이
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
 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조찰히 : 맑고 깨끗하게

**울연히 : 홀로 우뚝하게

(다)
 내 마음속에 구름 모이고 흩어지는
 칠원평야 같은 너른 벌판이 있어
 때로 폭우 쏟아져
 한탄강 같은 강물이 격류로 아우성치기도 하고
 때로 폭설이 내려
 지상의 모든 길이 끊기는 눈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폭우 속에서도 백로는 알을 품고
 폭설 속에서도 두루미는 새끼를 기르나니
 나 세상일에 하염없이 슬퍼질 때
 부영이 되어 찾아가 밤새워 우나니.
 - 최두석, 칠원평야 -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어조의 전환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상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1 (가)의 시상 전개에서 <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때, <보기>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일상(日常) → 탈일상(脫日常) → 일상
 ㄴ. 집(인간) ↔ 산(자연)

- ① 집을 떠나 크낙산에 오르고, 크낙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ㄱ'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적 화자는 '이름 없는 작은 산'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진다.
- ③ 만물이 공존하면서 소멸과 재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ㄴ'의 산(자연)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④ '편안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 '몸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곳의 대립적 이미지로 'ㄴ'이 나타나 있다.
- ⑤ 'ㄱ'의 '탈일상'으로의 모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ㄴ'의 집은 새로운 삶의 모태가 되는 공간이다.

22 밑줄 친 시어의 이미지가 (나)의 장수산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산이 날 에워싸고/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아들 낳고 딸을 낳고/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들짖레 꽃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 ② 산에는 꽃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피네//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김소월, 산유화 -
- ③ 누이야/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지금도 살아서 보는가/정정(淨淨)한 눈물들로 놀러 죽이고/그 눈물 끝을 따라 가면/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
- ④ 겨울 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얼음처럼 빛나고,/얼어붙은 폭포의 단호한 침묵./가장 높은 정신은/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허영게 얼어 떠진 계곡과 계곡 사이/바위와 바위의 결빙을 노래한다.
 - 조정권, 산정묘지 -
- ⑤ 빈 산이 젖고 있다.//등잔 앞에서/하늘의 목소리를 듣는다.//누가 하늘까지/아픈 지상의 일을 시로 읊겨/새벽 눈동자를 젖게 하는가
 -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

23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풍경은 단순한 객관적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풍경에서 자신을 본다. 풍경은 인간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으며, 그럴 때 하나의 풍경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 ① (나)의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흰' 풍경의 이미지는 고결함에 대한 시적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다.
- ② (나)의 시적 화자는 '장수산 속' 풍경에 있고자 함으로써 그 풍경과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③ (다)의 '폭우', '폭설'과 같은 자연 현상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에서는 '백로', '두루미'의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가 의미 있게 인식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의 '부영'이 '밤새워 우는' 풍경은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이를 심화하고 있다.

24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과 ㉡ 모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교차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 이질적인 두 대상을 동일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상반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은 유사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은 후각적 이미지를 다른 감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은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병행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 경제학에서는,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합리성'이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가운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의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대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주장이다.

(나) 그러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최수의 딜레마' 이론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격리된 두 용의자가 각각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합적인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수의 딜레마 이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다. 그들은 최수의 딜레마 현상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협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협동을 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주곤 한다. 그들은 이런 행동들도 합리성을 들어 설명한다.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는 오히려 상대방과 협조를 하는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협동도 크게 보아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다.

(라)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난개발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기 집 부근에 도로나 공원이 생기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은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 '합리적인 개인'이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 그렇다면 최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면 최수의 딜레마 같은 현상에 빠지지 않고도 개인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형성하며, 적절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친다면 개인의 합리성이 보다 쉽게 사회적 합리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것이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기존 견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재반박을 통해 기존 견해를 보강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라) -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견해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고 있다.
- ⑤ (마) -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쓴이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6 위 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가 기계라면 개인은 그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야.
- ② 사회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사람들은 이기심보다 협동심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
- ④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틀림없어.
- ⑤ 사회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군.

27. ㉠가 <보기>를 바탕으로 ㉢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 관련되어 있을 때 유독 협동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속한 집단의 협동을 중시하곤 한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는 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 ①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 정신에서 비롯된 순수한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 ② 한 집단 내에서의 협동으로 얻은 결과가, 그 집단이 속한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 ③ 사람들이 집단의 협동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 ④ 협동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라기보다는 일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보이는 현상 아닌가?
- 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집단의 협동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28. ㉠과 같은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점]

- ① 제 눈에 물 대기
- ② 언 밭에 오줌 누기
- ③ 도랑 치고 가재 잡기
- ④ 눈 가리고 아웅 하기
- ⑤ 못 먹는 감 찢러나 보기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뇌는 좀처럼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인간의 뇌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기억 정보를 어떻게, 어디에 저장하는지 알아낸다면 뇌의 비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억 정보가 뇌에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학설이 나왔지만, 그 중 ㉠ 뉴런(신경세포) 간 연결 구조인 시냅스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학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뉴런 1개당 수천 개의 시냅스를 형성한다. 시냅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냅스 전(前) 뉴런과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냅스 후(後) 뉴런, 그리고 두 뉴런 사이의 좁은 간격, 곧 20~50나노미터 정도 벌어진 시냅스 틈으로 구성된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말단에서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신호를 받아들이는 물질-를 자극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뇌가 작동하는 것은 시냅스로 이뤄진 신경망을 통해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뇌가 받아들인 기억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 저장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크게 서술 정보와 비서술 정보로 나뉜다. 서술 정보란 학교 공부, 영화 줄거리, 장소나 위치, 사람 얼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반면 비서술 정보는 몸으로 습득하는 운동 기술, 습관, 버릇, 반사적 행동 등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이 중에서 서술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뇌의 내측두엽에 있는 해마로 알려져 있다. ㉡ 교통사고를 당해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후 서술 기억 능력이 손상된 사람의 예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그는 교통사고 이전의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해냈다. 해마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닌 것이다.

서술 정보가 오랫동안 저장되는 곳으로 많은 학자들은 대뇌피질을 들고 있다. 내측두엽으로 들어온 서술 정보는 해마와 그 주변 조직들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쪼개져 신경정보 신호로 바뀌고 어떻게 나뉘어 저장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내측두엽은 대뇌피질의 광범위한 영역과 신경망을 통해 연결되어 이런 기억 정보를 대뇌피질의 여러 부위로 전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기억 내용이 공고해져 오랫동안 저장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비서술 정보는 어디에 저장될까? 운동 기술은 대뇌의 선조체나 소뇌에 저장되며, 계속적인 자극에 둔감해지는 '습관화'나 한 번 자극을 받은 뒤 그와 비슷한 자극에 계속 반응하는 '민감화' 기억은 감각이나 운동 체계를 관장하는 신경망에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이나 공포와 관련된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된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기억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저장되는 뇌 부위가 달라진다.
- ② 비서술 정보는 자극의 횟수에 의해 기억 여부가 결정된다.
- ③ 장기 기억되는 서술 정보는 대뇌피질에 분산되어 저장된다.
- ④ 서술 정보와 비서술 정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의 신호 전달은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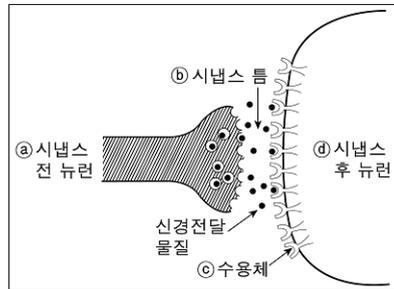
30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린 시절에 사고로 뇌가 손상된 뒤 심한 간질을 앓던 A씨는 뇌의 내측두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지능지수는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 그는 금방 보거나 들은 내용을 몇 분 동안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 간 집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술 전의 옛집 주소만을 기억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 배운 테니스 실력은 제법 괜찮았다. 비록 언제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그는 테니스를 잘 쳤다.

- ① A씨는 감정이나 공포 등을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② 이사 간 집 주소는 서술 정보이므로 기억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③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해마와 그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 ④ A씨가 배운 테니스 기술은 비서술 정보이므로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⑤ 수술 전의 옛집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대뇌피질은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31 다음은 ㉠을 그린 것이다. 위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제기한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외부의 기억 정보는 어떻게 ㉠까지 전달될까?
- ② ㉠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 ③ ㉠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어떤 성질을 지녔기에 ㉤를 자극하는 것일까?
- ④ ㉤를 자극해 발생시키는 전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신호가 전달될까?
- ⑤ ㉠가 신경전달물질에 전기신호를 일으키는 원리는 무엇일까?

32 <보기>는 ㉡에 나타난 추론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추론 과정을 보이는 것은?

< 보 기 >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후 서술 정보 처리 능력이 훼손되었다.
+ 그러나 그는 교통사고 이전의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해냈다.
→ 이로 보아 해마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다.

- ① 수많은 네티즌들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주장을 비난하고 있어, 독도는 우리 땅임에 틀림없는 거지.
- ② 어제 그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모임이 재미있었던 걸 보면, 모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데에 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 ③ 이 상자 겉면에 ‘깨지기 쉬움’이라는 주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상자 안에는 잘 깨지는 물건이 들어 있는 거야.
- ④ 유명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의 아내는 대개 미인들이다. 이로 보아 미인들은 운동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제방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강 하류 지역은 작년에 수해를 입었다. 이곳은 제방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올해 수해를 입을 것이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인 조사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기능이나 용법을 규명하는 일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가)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
-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 (다) 염소와 말이 풀을 먹었다.

(가)의 ‘삼국지’에는 ‘를’이 붙어 있는데, ‘를’은 ‘삼국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지만 (나)의 ‘삼국지’ 뒤에 붙은 ‘는’은 ‘삼국지’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나)는 ‘영수가 삼국지가 아닌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를 격조사라 하고 후자를 보조조사라 한다.

(다)에서 ‘와’는 ‘염소’와 ‘말’을 병렬적으로 이어주는데, 이처럼 ①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라 한다. ‘와’와 같은 조사를 격조사가 아닌 접속조사로 따로 나눈 것은 그 기능이 격조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가 붙은 체언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언은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진 모든 체언이 한 덩어리로 문장 성분이 된다.

(다)와 (가)를 비교해 보면, 주어 자리의 조사가 ‘가’에서 ‘이’로, 목적어 자리의 조사가 ‘를’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은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바뀐 쌍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립형식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이다. 자립형식이란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붙지 않고도 단독으로 문장 속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은 어미가 붙는 말들과 견주어 보면 뚜렷해진다. (가)에서 ‘-었-’이 붙은 ‘읽-’이나 ‘-다’가 붙은 ‘읽었-’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다. 국어 문법에서 ‘가, 를’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고, ‘-었-, -다’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앞에서 조사를 설명할 때 무엇에 붙어 쓰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사나 어미처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말들을 접사라

한다. 접사 가운데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것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에서 ‘-들’이 그것인데 이것을 파생접사라 한다. 흔히 좁은 의미로 접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파생접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들’은 자립형식인 체언에 붙는 것이어서 조사와 혼동하기가 쉽다. 이 ‘-들’을 조사가 아닌 파생접사라고 하는 까닭은, 조사는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어휘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에 다 붙을 수 있지만 ‘-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33 위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1점]

- ① 조사의 문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 ②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는가?
- ③ 조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조사의 형태 바뀔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⑤ 조사는 파생접사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34 위 글로 수업을 한 후 선생님이 <보기>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격조사와 보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① 그것들이 붙은 말의 자립성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말에 붙어 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일 어휘 범주에서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가, 뜻만을 더해 주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⑤ 그것이 붙은 체언이 단독으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3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낙엽을 태우는 냄새같이 좋은 향기가 있을까?

- ① ‘낙엽, 향기’에 붙은 ‘이’와 ‘가’는 서로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② ‘좋은’의 ‘은’은 자립형식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이다.
- ③ ‘냄새같이’에서 ‘같이’는 국어 문법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 ④ ‘낙엽이’에서 ‘낙엽’은 ‘이’가 붙지 않아도 문장에 단독으로 쓰인다.
- ⑤ ‘하늘’에 붙은 ‘은’과 ‘낙엽’에 붙은 ‘이’는 문법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

36 ㉠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루하고 먹하고 가져 오너라.
- ② 술에 밥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 ③ 머루랄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 ④ 웃이며 신이며 죄다 흘어져 있었다.
- ⑤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건달때 노름꾼인 아버지와 장돌뱅이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굶주림에 대한 공포감, 피투성이가 되어야 끝나는 부부싸움, 어머니의 심한 폭력 속에서 갑초처럼 자란다. 그 후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1년도 채 못 되어 자신이 비천한 장돌뱅이 출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퇴를 하고 장터로 되돌아온다.

세상에 대한 무기로서 나는, 그 무렵 알기 시작한 문학을 배 놓을 수가 없다. 딸마니 시절, 나 같은 일치기는 흔히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사건을 키우기 마련이어서, 어느 날 건달때를 따라 노름빚을 받으러 갔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차침 겁을 준다는 것이 그만 상대방의 머리를 깨 버렸고, 나는 결국 사건이 무마될 때까지 장터를 떠나야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도청 소재지로 갔고, 거기에 있는 친척집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다.

바로 거기서 나는 문학을 만난 것이었다. 친척집의 서가에는 세계 문학 전집을 위시하여 한국 문학 전집 따위가 장식용 비슷하게 꽂혀 있었는데, 지방관청의 주사 급이던 친척은 술이라도 얼큰한 날이면 나를 불러들고 서가를 자랑하며 자신의 문학 취미에 대해서 가로세로 떠들곤 하였다. 나로서는 문학이 처음이었다. 문학마저도 ㉠ 장돌뱅이 부류는 짚 수 없는 보다 정신적이고 고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나는 한두 권 소설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벼락이라도 맞듯 충격을 받았다.

‘이건 바로 내 이야기 아닌가!’

어떤 소설은 나보다도 형편없는 개차반 인생이 바로 그 개차반 인생을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중언부언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개차반 인생이 그런 이야기로 작가가 되고, 그리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끼어들었다는 점이었다. 문학이 그런 식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다. 당시 내가 이해한 문학은 내가 세상에 끼어들 수 있는 일종의 문 같은 것이었다.

친척의 서가에서 앤솔러지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차츰 시를 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설보다는 시를 쓰기로 작정을 하였다. 아무리 영악한 체하지만 역시 어렸던 나로서는 자신의 치부를 날날이 세상에 까 보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치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듯 없는 듯 잘도 꼬리를 감추는 시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다. 내가 딸마니 시절에 배운 세상을 속이는 방법과 ㉡ 시가 지닌 상징이나 은유 따위의 애매모호한 기교는 신기하게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다시 복학을 하자 나는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문학을 잘하였다. 시 쪽을 택한 나의 공리도 잘 맞아떨어져서 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놓지 않고서도 거뜬히 세상에 끼어들 수 있었다. 몇 군데인가 백일장을 휩쓸자 당연히 내 이름은 도청 소재지의 남녀 고등학교 문예반에 알려졌고, 모르는 여학생들로부터 심심하지 않게 편지도 받았다.

아아, 처음으로 여학생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이랴니! 나에게 대한 동경으로 거의 글씨마저 떨리는 듯한 그 편지는, 처음에 나에게 일종의 면죄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랬다. 누군

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심지어 감추어진 치부까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듯이 착각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이 지나자 나는 곧이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했다. 착각하지 마라. 너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렇듯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고작 철없는 여학생 한 명이 너에게 속아 넘어간 것뿐 아닌가. 그것도 정작 네가 아닌 너의 문학에.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학생을 대하고 그리하여 나에게 대한 호감을 확인했을 때도 나는 마찬가지였다. 도청 소재지에는 ㉢ 남녀 고등학교 문예반에서 한두 명씩 뽑혀 나와 만들어진 문학동인회가 있었고, 마침내 나도 거기에 가입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작품을 돌려 읽고 평을 하는 식의 모임이었는데, 신입 회원으로 첫 인사를 하던 때의 기억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무기를 지니고 단단히 무장을 했다고 해도 역시 어린 나이였다. 나에게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들을 대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저 아이들은 혹시 내 치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왔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나는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뺏뺏이 세웠다. 당시의 나에게, 적어도 그들만큼은 세상을 속이는 나와는 달리 올바르게 문학을 하는 셈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이었다. 바로 그들에게 내 치부를 들킨 것이었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구해 주었다.

“택의 명성은 잘 알고 있으니깐 그만 목에 힘 빼세요.”

얼굴이 달걀처럼 가름한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의 말에 모두가 다했다는 듯이 크게 입을 벌려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어떤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다. 엉뚱하게도, 나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마치 그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여전히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이런 식일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치부를 들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바탕의 웃음과 함께 인사가 끝났을 때, 얼굴이 가름한 여학생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가) 여학생의 질문이 나에게서 왜 그렇듯 잔인하게 들렸던 것일까. 나는 마치 여학생을 짓몽개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빨간색이요.”

얼마 후 그 여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화장실에 버렸다. 여학생의 편지를 화장실에 버린 행위는, 단순하고 유치한 심리와는 달리, 나의 일생을 통해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다. 물론 당시의 나로서는 까마득히 몰랐지만 그것이 일테면 나의 위악(偽惡)의 시초였던 셈이다. 훗날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이 위악이야말로 나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되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 세상에 대한 나의 무기는 바로 위악이었을 터이다. 사회과학 식으로 말한다면 위악이 나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 위악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거나 탐미주의 혹은 허무주의 등과 뒤섞여 세상에 대하여 깊게 병든 한 청년의 문학이 되어 갔다.

-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고백체 형식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유랑하는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 ③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인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8. <보기>의 관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태도로 위 글을 감상한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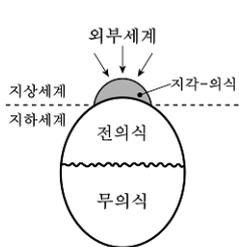
< 보 기 >

학생들의 감상 행위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체험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작품 속에 투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진실을 발견해가는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① 정빈 : 요즘에는 영상 예술이 유행이어서 작품 속의 인물들처럼 문예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를 무척 찾아보기 힘들어.
- ② 형식 : 내 꿈은 소설가인데, 주인공이 소설보다 시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접하고는 시를 써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
- ③ 우진 :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화장실에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안타까워. 여학생의 마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과 처지에 연민을 느꼈어.
- ④ 윤철 :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을 포기하지 않고 활달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낙관적인 인생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⑤ 규삼 : 주인공의 삶의 굴곡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나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3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가장 적절히 이해한 것은? [3점]

< 보 기 >



프로이트는 인간이 유년 시절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전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 트라우마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는 이를 가로막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그 결과 트라우마는 꿈, 증상, 실수, 문학작품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 ① ㉠의 '장돌뱅이', ㉡의 '기교'와 ㉢의 '문학동인회'는 '나'의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나타나는 과정에 작용한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 ② ㉠의 '장돌뱅이 부류'는 '나'의 의식 세계의 트라우마를, ㉡의 '정상적인 가정'은 '나'의 무의식 세계의 트라우마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의 '장돌뱅이'는 '나'의 트라우마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 '위악(偽惡)'은 그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 ④ ㉡의 '문학동인회'와 ㉢의 '정상적인 아이들'은 '나'의 트라우마를 형성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⑤ ㉡의 '위악'은 유년시절 형성된 '나'의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로, ㉢의 '시'는 이것이 의식 세계로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여학생의 질문에는 '나'에 대해 느끼고 있는 호감이 담겨 있다.
- ② '나'의 대답은 성난 감정과 공격성이 드러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 ③ 질문은 상냥하고 다정한 어조, 대답은 무뎠답하고 매몰찬 어조로 했을 것이다.
- ④ '나'는 여학생과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는 것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질문한 여학생은 '나'의 대답을 듣고는 대답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41. 가로세로 떠들썩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횡설수설(橫說豎說)
-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 ⑤ 설왕설래(說往說來)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이로써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

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

‘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며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을 극복될 수 있다.

42 글쓴이가 위 글을 소개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적인 인간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근대 이후 획득한 자유를 포기하려는 현상의 원인과 그 심리 과정을 밝히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③ 근원적 불안과 고독감을 해결하려는 근대 이후의 노력을 제시하고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하려고 하였습니다.
- ④ 고독감과 불안감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⑤ 근대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습니다.

43 ㉠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 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
- ②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

- ③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④ 자신의 직업에 대해 천직 의식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으로 전전하는 태도
- 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 각종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

44 위 글로 보아,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은 근대 이전, ㉡은 근대 이후에 찾아볼 수 있다.
- ② ㉠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비해 ㉡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③ ㉠은 자유가 부재한 상태이고 ㉡은 자유를 포기한 상태이다.
- ④ ㉠은 안정감과 소속감, ㉡은 고독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 ⑤ ㉠은 소극적 자유, ㉡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으로 해결된다.

45 <보기>는 어떤 소설의 줄거리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탐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서울에서 살던 ‘나(한병태)’는 Y읍의 한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학급 반장 엄석대가 담임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석대에 대한 복종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현실에 대해 저항해 보지만, ‘엄석대’의 힘에 눌려 달리 대항해 볼 방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엄석대의 폭력·위압·비행을 담임 선생님께 고발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식되어 배척받고 소외당한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시혜를 받게 된다. 6학년이 되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엄석대 체제는 몰락하게 되고, 학급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 ①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엄석대가 힘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은 일종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띤 ‘도피’에 해당한다.
- ③ 처음에 저항하던 ‘나(한병태)’는 결국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자동인형’으로 전락한다.
- ④ 학급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행동은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 ⑤ ‘나(한병태)’의 좌절은 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6 ㉢~㉤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봉건질서의 붕괴로 노비들이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 ② ㉣ : 그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합치되어서 일하기가 수월하다.
- ③ ㉣ : 그는 권력가와 결부하여 출세하려고 애를 썼다.
- ④ ㉣ : 나와 소원하게 지내던 그가 별안간 나를 찾아왔다.
- ⑤ ㉤ : 그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가 몹시 궁금하였다.

[47 - 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태준, 묵죽과 신부

김하서란 서화징(書畫徵)에도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무명화가다. 그의 수묵 한 폭이 더구나 그 시절에 몇 푼짜리가 되었을 리 없다. 다만 불개청음(不改淸陰)*하는 때이니 딸에게 아버지가 내리셨고 그런 청덕(淸德)을 받드는 자식이니 텅 빈 신행(新行) 의룡(衣籠)** 속에 묵화 한 폭으로써 어엿이 시집온 것이다. 나는 그 딸 그 며느리의 고음, 맑음, 순함이 그림다. 다시 이런 사가(查家)와 이런 자부(子婦)의 향기로운 예와 덕을 향기롭게 받을 줄을 안 그 시아버지의 높음이 가히 우러러보인다. 나는 현대가정, 현대문화, 현대여성에게서 이런 고도의 문화, 이런 고도의 미덕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雙幹墨竹 勝千金(쌍간묵죽승천금)이나 庶慰平生向道心(서위평생향도심), 모두 사향(麝香)을 갈아 관주(貫珠) 줄 만한 시구들이다.

야사(野史)를 떠올리자면 수가 무궁하리니와 우선 정수동 부인도 이런 데서 생각나는 여성인 하나이다. 아내가 비가 새는 것을 걱정하니 구석구석에서 떨어져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고 “차마 끝에 급한 형세난 백척폭포 쏘아오고……” 소상가(瀟湘歌)를 불렀다는 천하기걸(天下奇傑) 수동이라 ㉠그의 집안이 구차할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가 남의 집 사랑에서 죽은 뒤, 그를 평소에 아끼던 대감 한 분이 엄동절(嚴冬節)을 당하여 그의 유처(遺妻)에게 쌀과 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수동의 아내 이를 받지 않았다.

[A] 대감이 피이히 여겨 하인에게 물었다.

“뒤편하고 하며 받지 않더냐?”

“누가 보내는 거냐 해서 대감께서 보내신다 했더니 그 때 대감께서 내게 식량을 보내실 일이 없다 하십니다.”

대감은 얼른 무릎을 치고

“내가 실수했구나! 얼른 다시 가지고 가 이번엔 내가 보낸다고 허지 말고 우리댁 마님께서 보내십디다 해라.”

그제야 수동의 아내는 그 쌀과 나무를 받았다.

떨고 굶주리되 사랑(思量)과 체도(體度)를 헐지 않는 여유, 이거야말로 높은 교양이요 예의요 자존심일 것이다.

교양이라거나 자존심이란 말이 현대처럼 많이 쓰인 시대는 일찍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 교양, 이런 자존심이 현대 우리에게, 현대 여성에게 엄연히 군림하고 계신가?

* 불개청음(不改淸陰) : 대나무의 그늘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함.

** 신행(新行) 의룡(衣籠) : 혼인을 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옷봉

(나) 윤선도, 만흥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B]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면

어리고 향암(鄕闇)*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향암(鄕闇) : 시골에서 지낸, 사리에 어둡고 어두운 사람

(다) 박인로, 누항사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침피기옥(瞻彼淇澳)한데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님대 하나 빌려주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입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늠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손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목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다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워하여 손을 친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래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47. (가)~(다)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
② 타자를 바라보는 넉넉한 시선들
③ 운명적 갈림길에서 되돌아보는 나
④ 견뎌내며 불의의 시대를 판통해 나간다
⑤ 소외된 삶 속에 감추어진 파폐한 이면들

48. <보기>에 근거하여 (나)를 해석해 보았다. 적절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기 >
사대부 시인들의 자연 예찬은 벼슬살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연 예찬의 노래는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림, 즉 정치적 시련,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 무리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벼슬 따위는 할 수 어도 안 한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감이 들어있다.

- ① ‘산수’, ‘바위’ 등으로 구체화된 자연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자신을 ‘어리고 향암’이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벼슬살이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담겨 있다.
③ ‘보리밥 풋나물’은 벼슬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작가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님의 말씀과 웃음’보다 우위에 둔 것은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49. (다)의 화자에게 ‘강호’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복이 위루’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간이다.
② ‘두세 이랑 발논’을 목혀 던져두고 찾아가는 공간이다.
③ 주어진 ‘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려 하는 공간이다.
④ ‘빈이무원’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⑤ ‘설운 뜻’에서 오는 시름을 위로받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다.

50 (가)의 [A]와 <보기>를 비교하여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 보 기 >

지난날 '남녀유별'이 어땠는지를 한 야담(野談)에서 들어 보자. 곤궁한 삶에서도 해학을 즐겼던 정수동이 죽은 후, 그 부인과 어느 대감에 얽힌 이야기다. 추운 겨울을 당하여 정수동의 유족이 어려울 것임을 잘 아는 대감이 하루는 하인을 시켜 쌀과 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정수동 부인이 받지를 않아 하인은 그냥 돌아왔다. 생각 끝에 대감은 자신이 내외법(內外法)을 잊고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인이 다시 가서 이번엔 마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하니, 그제야 정수동의 아내는 그 쌀과 나무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다.

- ① 수련 : [A]와 <보기>를 보면서 주제나 의도에 따라 같은 이야기에도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 ② 진영 :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A]는 <보기>와는 다르게 대화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어.
- ③ 대호 : [A]와 <보기>의 글쓴이 모두 '정수동'과 '정수동 부인'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
- ④ 정주 : [A]에는 대감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기>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구나.
- ⑤ 상일 : [A]에 짧게 소개된 정수동 일화는 <보기>의 '곤궁한 삶에서도 해학을 즐겼던 정수동'이라는 구절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야.

51 <보기>에 근거할 때, (나)의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나)의 [B]는 대개의 시조와 같이 표면상 '긴장 조성 - 긴장 고조 - 긴장 해소'의 의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주제와 세계와의 갈등 즉, 가치와 지향을 두고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전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떠짐'을 짓는 '나'의 행위는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나'의 행위에 대한 '남'들의 웃음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 ③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세계인 '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 ④ '분수'를 들어 주체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 ⑤ '나'의 행위와 '남'들의 웃음을 절충함으로써 긴장이 해소된다.

52 ㉠의 의미를 (나)와 (다)에 나오는 구절을 활용하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보리밥에 풋나물은 배불리 먹는 정도였다.
- ② 혼자 앉아 먼 피만을 바라보곤 하였다.
- ③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는 형편이었다.
- ④ 무상한 그에게는 어떤 지취도 없었다.
- ⑤ 빈천은 슬피 여겼지만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53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저운을 찾아 가 수확한 지 삼 년에 백로의 문장이 거룩한 지라, 백로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선생에게 하직을 하고 돌아와 부모를 뵈온대, 부모도 크게 반겨 손을 잡고 정회를 이르며 학업이 크게 발전함을 칭찬하여 더욱 귀중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하루는 백로에게 백학선(白鶴扇)을 가져오라 하거늘 백로가 말하기를,

“㉠우연히 길에서 잃어 버려 감히 드리지 못하나이다.”

하차 상서가 크게 노하여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너에게 이르러서 잃었으니 어찌 불초자(不肖子)를 면하겠느냐?”

하고 한숨지어 탄식하기를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병부상서 평진이 유 상서를 보러 왔다가 생의 사람됨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여겨 사위 삼기를 청하거늘 상서가 초봄에 혼인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생이 간하기를,

“소자의 마음에 작정하기를 뒷날 입신양명하온 후에 혼인을 정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부친은 소자의 진정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상서가 이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겨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차시(此時) 유생이 나이가 십칠 세라 문장이 뛰어나고 풍채가 좋고 당당하대 보는 사람이 모두 칭찬하니라. 이때에 천자가 별과(別科)를 실시하여 생이 이 소식을 듣고 장중(場中)에 들어가 시지(試紙)를 펼쳐 붓을 한번 두르매 문불가점(文不加點)이라. 전상에 바치고 기다리더니 이윽고 이번 장원은 전임 이부상서 유태종의 아들 백로라 부르거늘, 생이 크게 기뻐 사람을 헤치고 천자 앞 섬돌로 나아가니 천자가 보시고 어주(御酒)를 하사하시며 말하기를,

“네 조상부터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이니 너도 국가의 주석 지신(柱石之臣)이 되리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하시고 즉시 유백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유태종으로 귀주자사를 임명하사 바빠 부르시니, 이때 유태종이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즉시 상경하여 한림을 보고 못내 기뻐하고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한 후 귀주로 도임하니라. 한림이 또한 표를 올려 선상에 제사 드린 후 모친을 뵈옵고 돌아와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를 올리니 상이 보시고,

“경으로 남방순무어사(南方巡撫御使)를 맡기니 백성들의 고통과 수령의 선악을 살펴 짐이 믿는 바를 저버리지 말라.”

하시니 어사가 즉시 하직하고 물러나와 생각하되, ‘이제 남방순무어사가 되었으니 전일 소상죽림(瀟湘竹林)에서 백학선을 준 여자를 찾아 평생 소원을 이루리라.’ 하더라.

이때 조 낭자의 나이가 열다섯이라, 부드러운 태도와 기이한 기질이 진실로 절대가인(絶代佳人)이라. 전에 소상죽림에서 한 소년을 만나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왔더니, 점점 자라 백학선을 내어 본즉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라 쓰고 그 아래 사주(四柱)를 기록하였거늘, 심중이 놀라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라. 어찌 할 길이 없어 마음에 기록하고 말을 내지 아니하더라.

이때 남방 남촌에서 상서 벼슬하는 최국낭은 당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요 서자 하나가 있으니 인물과 재학이 뛰어나, 명사 재상의 딸 른 자가 구혼하고자 하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고, 조성로의 딸이 천하 경국지색이란 말을 듣고 중매를 놓아 구혼하니 조공이 즉시 허락한지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부모가 크게 놀라 여아의 침소에 나아가 조용히 물기를,

“우리가 늦게 너를 얻어 기쁜 마음이 측량없더니, 주야로 기다리는 바는 어진 배필을 얻어 원앙이 짝을 이루는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이제 무슨 연고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자처하느냐? 그 꼭걸을 듣고자 하노라.”

남자가 주저하다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소녀 같은 인생이 세상에 살아 무익한 고로 죽음으로 고하고자 하옵나니, 바라건대 부모는 살피소서. 소녀가 열 살에 외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유자를 얻어 가지고 오다가 소상 죽림에서 잠깐 쉬었더니 그때 한 소년 선비가 지나가다가 유자를 구하기로 두어 개를 주었더니 받아먹은 후에 담으로 백학선(白鶴仙)을 주어 어린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 받아 두었삽더니, 요사이 때 본즉 그 부채의 글이 백년가약을 뜻한 지라, 그때에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옵고 또한 그 선비를 보온즉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라, 소녀가 이미 그 사람의 신물(信物)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집 사람이라. 어찌 다른 가문에 마음을 두리이까? 만일 생전에 백학선 임자를 만나지 못하오면 죽기로써 백학선을 지키을지라.”

하고 인하여 부채를 내어 다시 말하기를,

(가)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소녀는 죽어 혼백이라도 유가에 들어가 백학선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원하건대 부모는 소녀의 박명(薄命)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죽은 후라도 만일 유생이 소녀를 찾아오거든 소녀의 조그만 정성을 갖추어 전하여 소녀로 하여금 소상장 밤비 중에 외로운 혼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말을 마치니 눈물이 비 오듯 하고 조공 부부 또한 흐느끼며, “네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어찌 진좌에 이르지 않았느냐?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키어 죽기로 정하거니와 저의 뜻을 어찌 알며 일시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주고 간 부채를 찾으러 오기 쉽겠느냐? 그러하나 네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 다만 거주와 성만 가지고 천리원경에 어디를 향하여 찾으리오? 일이 너무 명랑하니 난처하도다.”

남자가 답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열녀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오니 소녀는 결단코 다른 가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그 사람은 잠깐 보아도 신의를 가진 군자였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백학선은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 무단히 남을 주지 아니할까 하나이다.”

하거늘 조공이 들으니 그 철석같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줄 알고 할 수 없어 이 뜻을 최국낭에게 전한데, 최국낭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해할 뜻을 두더라.

- 작자 미상, 백학선전(白鶴仙傳) -

5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이한 소재를 활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관련 있는 두 인물이 각각 겪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배경을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성격을 뚜렷이 형상화하고 있다.

54 ㉠의 말하기의 성격과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1점]

- ① 실토하기 - 잘못된 게 확실하니 자세히 말씀드려 용서를 빌어야지.
- ② 둘러대기 - 아직은 사실대로 말할 때가 아니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지.
- ③ 선수 치기 -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지.
- ④ 차단하기 - 부모님이 내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 두어야지.
- ⑤ 연막 치기 - 부모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내가 계획하는 일을 모르게 해야지.

55 (가)에 나타난 ‘조 남자’의 상황과 심정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은?

- ① 사창(紗窓)에 기대 앉아 수놓기도 느리구나,
활짝 핀 꽃떨기에 피꼬리는 지저귀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겨 있네.
- ②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 되었으나
남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행여 옛 정이 아직 끊이지 않았다면,
황천으로 가기 전 이 내 몸 찾아 주소.
- ③ 연전에 맺은 인연 기이하고 신비하나
참으로 좋은 일엔 마(魔)가 많구나.
임의 자취 더듬어 가연(佳緣)을 이으려니
이승이 어려우니 저승이라 관계하리.
- ④ 편지를 부치고자 하나 부칠 길이 전혀 없어,
붓을 물고 창문가를 몇 번이나 돌았던고.
쓸쓸히 이별한 후 임 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 ⑤ 좋은 인연 되려는지 곳은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삼추(三秋) 같네.
넘겨 보낸 시 한 수에 가약(佳約) 이미 맺었나니,
저 다리 위 어느 날에 우리 고운 임 찾아올까.

56 ‘백학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 남자’가 ‘백학선’을 귀하게 간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 남자’의 절개를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 ② ‘유백로’와 ‘조 남자’가 다시 만난다고 가정할 때, ‘조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③ ‘유백로’가 ‘백학선’에 새긴 글귀로 보아 ‘유백로’가 ‘조 남자’를 반려자로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 ④ ‘백학선’이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는 ‘조 남자’의 말을 참고할 때, ‘유백로’ 가문의, 조정에서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 ⑤ ‘조 남자’가 처음 본 소년에게서 ‘백학선’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57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 태양의 빛은 1제곱미터당 약 1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태양전지는 이렇게 풍부하면서도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주재료인 실리콘을 가공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고가의 기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산화티탄을 광촉매로 이용한 태양전지가 개발되었지만, 산화티탄은 발전(發電)에 이용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대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외선은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약 4~5%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 광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이다.

식물들은 햇빛의 에너지를 거의 100%에 가깝게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물의 정교한 시스템을 모방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한 기술이 바로 인공 광합성이다. 다만,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드는 데 반해, 인공 광합성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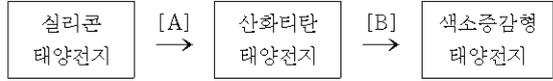
식물이 햇빛을 받아들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엽록소 등의 색소가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는 이러한 광합성의 원리를 모방하여, 파장이 500~600나노미터인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전자가 쉽게 들뜰 수 있는 광감응 염료(색소)를 산화티탄 박막에 흡착함으로써 더 많은 태양빛을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빛에 의해 들뜬 색소의 전자가 산화티탄의 전도대에 주입되고 이것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며, 전자를 방출한 색소는 전해액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I)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다시 전기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전지에는 지름이 10~30나노미터인 산화티탄의 미세한 입자를 전극으로 사용하는데, 미세 가공을 통해 산화티탄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색소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는 색소 분자가 모은 빛에너지의 50% 이상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전의 태양전지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수소도 훨씬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광촉매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써 산소와 수소를 얻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얻은 전기로 다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과정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 게다가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박막으로 만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BT필름을 기판으로 사용한 전지도 개발되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7.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인공 광합성의 의미
- ② 태양전지의 개발 이유
- ③ 실리콘 태양전지의 구조
- ④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
- 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의 개발과 활용

58. 위 글을 참고할 때, 다음 [A]와 [B]의 과정에서 작용한 주요 동인(動因)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A] | [B] |
| ① 크기를 축소함 | 내구성을 강화함 |
| ② 제조 공정을 단순화함 | 이용의 범위를 확대함 |
| ③ 제조 비용을 줄임 |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임 |
| ④ 재료의 범위를 확대함 | 작동 가능한 조건을 확대함 |
| ⑤ 설치 과정을 단순화함 | 생산되는 에너지의 품질을 높임 |

5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식물의 광합성과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 항목	식물의 광합성	색소증감형 태양전지
① 이용하는 원료	이산화탄소, 물	요오드, 물
② 생산물	유기물, 산소	전기, 수소, 산소
③ 에너지원	태양에너지	
④ 색소의 주된 기능	에너지 흡수와 변환	
⑤ 에너지 수용의 중요 기계	엽록소	색소가 흡착된 산화티탄

60.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네가 힘을 써서 새 분위기를 만들어 봐라.
- ② 너는 왜 자꾸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지?
- ③ 이곳은 합성수지로 책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 ④ 판소리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 ⑤ 상대를 꿈쩍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